



故 최중현 회장(왼쪽 첫번째)이 1986년 해외 유학을 앞둔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폐암수술을 받은故 최중현 회장(가운데)이 IMF 구제금융 직전인 1997년 9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故 최중현 회장(왼쪽 첫번째)이 1981년 초 내한한 아mani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담소를 나누는 장면. 최중현 회장은 제 2차 석유파동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유공급 문제를 해결했다. /SK

# 미래 내다본 기업인, 에너지·ICT강국 초석 다졌다

## 최중현 SK회장 20주기 재조명되는 경영철학

울산에 파라자일렌 제조시설 준공 석유화학·필름 등 수직계열화 완성 사재털어 한국고등교육재단 설립 해외 유학비용·생활비 파격 지원 지도층 인사 첫 '회장' 장례문화 선도 500억 화장시설 준공...사회 기부

"미래는 도전하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오는 26일로 타계 20주기를 맞는 고(故) 최중현 SK회장이 남긴 말이다. 최중현 회장은 큰 유전도 없는 한국을 무자원 산유국으로 만들고,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그 밖에도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에도 성공해 ICT 강국의 기반을 닦는데 기여했다. 재계에서는 그를 '10년을 내다본 기업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중현 회장은 자본, 기술, 인재가 없었던 1973년 당시 선경(현재 SK)을 세계



별거숭이였던 중주 인등산이 울창한 '인재의 숲'으로 변한 모습. 원안은故 최중현 회장과故 박계희 여사가 1977년 인등산에서 함께 나무를 심는 모습. /SK

일류 에너지·화학 회사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섬유회사인 SK가 원유정제를 비롯해 석유화학, 필름, 원사, 섬유 등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비현실적이라 했지만 최중현 회장은 중동지역 왕실과의 석유 네트워크 구축 등 치밀한 준비 끝에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를 인수했다. 이후 1983년부터 해외유전 개발에 나섰다. 성공확률이 5%에 불과한 사업임에도 1984년 북예멘 유전개발에 성공했다. 1991년 울산에 합성섬유 원료인 파라자일렌(PX) 제조시설을 준공함으로써 수직계열화도 완성했다.

이후 정보통신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

으로 삼은 최중현 회장은 미국 ICT 기업들에 투자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해 이동통신사업을 준비했다. 1994년 한국이동통신 민영화에 참여하면서 당시 주당 8만원 대이던 주식을 주당 33만5000원에 인수했다. 주변에서 만류하자 "이렇게 해야 나중에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회사 가치를 더 키워가면 된다"고 설득한 일화도 있다.

최중현 회장은 1974년 사재를 털어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당시 서울 집 한 채 값보다 비싼 해외 유학비용은 물론, 생활비까지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재단은 44년간 인재를 키워냈는데 약 3700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이후 740명의 해외 명문대 박사를 배출했고 이 가운데 80% 이상이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양계 최초 예일대 학장인 천명우(심리학과), 한국인 최초 하버드대 중신교수 박홍근(화학) 등 세계적 석학이 된 이들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시절인 1997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도 산소호흡기를 낀 채 경제 살리기를 호소했던 최 회장은 1998년 8월 26일 69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다. 최 회장은 폐암으로 타계하기 직전 "내가 죽으면 반드시 화장

하고, 훌륭한 화장시설을 지어 사회에 기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고 최중현 회장이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는 처음으로 회장을 택하면서 장례문화 선도하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98년 20%에 불과했던 화장률은 이듬해 30%를 넘는 등 매년 급증했고, 현재는 82%에 달할 만큼 대중화됐다. SK그룹은 최중현 회장의 유언에 따라 2010년 1월 500억원을 들여 충남 연기군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장례시설을 준공해 세종시에 기부했다.

최중현 회장이 남긴 경영 DNA는 장남 최태원 회장에게 이어졌다.

최태원 회장은 2011년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반도체와 바이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인수 직후 최태원 회장은 "하이닉스가 SK 식구가 된 것은 SK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오랜 꿈을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30년 전 최중현 회장의 못다 이룬 꿈을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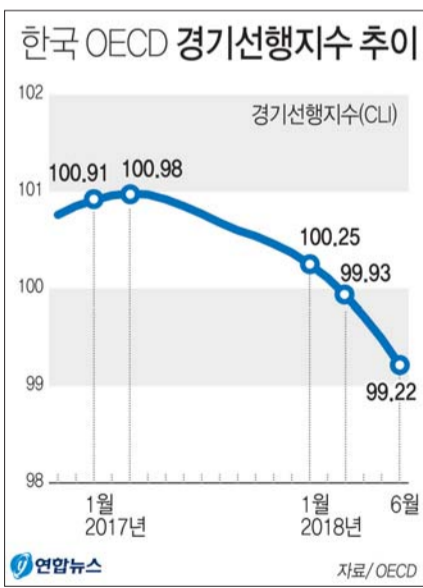
최태원 회장이 1998년 취임할 당시 SK 그룹은 매출 37조4000억원, 순이익 1000억원, 재계 순위 5위였지만 현재는 매출 158조원, 순이익 17조3500억원, 재계 순위 3위로 성장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 더 강해진 OECD 韓 경기 전망

# '경기선행지수' 15개월째 하락... 외환위기 시절에 '버금'

0.2%p ↓ ... 6개월만에 최대낙폭 통계청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OECD 회원국 평균 경기선행지수도 작년 11월 100.23으로 정점을 찍고서 12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했다. 4~6월은 100 이하다.

하지만 다른 국가는 하락 시점이 최근이고, 하락 폭도 한국보다 작다는 점이 차이이다. 다른 국가보다 한국 경기가 더 먼저 더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악화일로다.

6월 산업생산동향을 보면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하락했다.

2월부터 4월까지 하락하다가 5월 보합을 나타냈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다수의 경기지수가 일제히 경고음을 내는 것은 그만큼 경기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뜻이다.

조선업·자동차 등 심화하는 주력산업

의 위기,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등은 반전의 기회를 찾기 쉽지 않은 난제로 꼽힌다.

수년째 회복되지 않는 일자리, 반도체

기계 수입이 주춤하면서 휘청대는 투자, 회복세가 더딘 중국인 관광객 등은 서둘러 대응이 필요한 위기 요인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제55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8월 22일~9월 13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9월 2일(일), 9월 9일(일), 9월 11일(화)

김민영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한국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 신호가 더 강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발표되는 경기지수의 하락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있는 진단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다. 12일 OECD에 따르면 올해 6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려간 99.2를 기록했다. OECD CLI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쓰인다. OECD는 한국은 행·통계청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자본재 재고지수, 코스피 등 6개 지수를 활용해 지수를 산출한다. 통상 100을 기준점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면 경기 하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지수가 꾸준히 하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면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3월 100.98로 정점을 찍고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 연속 전월보다

하락했다. 이보다 더 길게 지수가 하강했던 것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0개월 연속이 유일하다. 하락 폭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올해 2월까지 매월 0.1포인트 내외로 하락했던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3월 99.93으로 100이 붕괴하면서 0.2포인트로 낙폭을 넓혔다. 가장 최근인 6월은 하락 폭이 0.3포인트까지 커졌다.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